ELIO'S LITTLE DISCOVERIES

The Lantern Clue

등불 단서 · 사과와 친절이 오해를 푸는 방식 말하기



10세 · Day 055 · 함께 읽기 · 5장면



There sat the red lantern, safe on the dry shelf. Its little battery light glowed. “It’s here!” Elio shouted. Bori clapped her wings. Mum smiled and pointed at the muddy boots behind the counter.



A tall grey hare in an apron came out of the tea stall. “You found it!” she said. “The wind knocked it off the crate. I put it on the shelf, out of the rain.”



“Your boots left the wet spots,” said Elio. “I carried water from the well,” said the tea seller. Elio looked at his paws. “I thought someone took my lantern. I am sorry.”



“No harm done,” she said. “A lantern should stay dry.” Mum put her paw on Elio’s shoulder. Bori lifted the lantern carefully. Its red paper was whole and its light was steady.



They carried the lantern home through the market. Its paper was whole, its light steady, and it led the way. “Next time, I will hold it tight,” said Elio.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빨간 등불과 저녁 시장을 함께 보고, 등불을 잃어버리면 어디를 먼저 찾을지 가볍게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한 장씩 읽으며 빨간 실, 젖은 자국, 젖은 장화 같은 단서를 찾아봐요. 등불이 건전지 불빛이라 불꽃이 없다는 점과, 천이 아니라 처마 아래 선반에 놓였다는 점도 그림에서 확인해요. 엘리오가 누군가 가져갔다고 짐작하는 장면에서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줘요.

생각 나누기

등불을 옮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엘리오의 짐작을 원문에서 하나씩 찾아봐요.

생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시장 그림에서 좋아하는 가게를 골라 봐요. 답을 맞혀야 끝나는 책은 아니에요.

대화와 단서를 따라가는 긴 함께 읽기 원고 초안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읽기나 추리 평가가 아니에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